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한 풀코스 참가자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승촌보 구간을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늘에서 본 '출발' 대회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헬기에서 촬영한 모습. /4명주기자 mjna@

금남로~영산강 명품코스 질주 두 발로 쓴 '봄의 드라마' 감동

■ 3·1절 마라톤 각 부문별 입상자

순위	배번호	이름	기록
풀 남자 1위	237	김수용	2:37:23
풀 남자 2위	339	최진수	2:42:17
풀 남자 3위	241	김승환	2:42:22
풀 여자 1위	459	이정숙	2:56:35
풀 여자 2위	434	정순자	2:58:15
풀 여자 3위	426	문선미	3:08:43
하프 남자 1위	1377	박승근	1:15:41
하프 남자 2위	1383	박종욱	1:15:44
하프 남자 3위	1412	안계원	1:16:41
하프 여자 1위	1522	이경화	1:21:09
하프 여자 2위	1520	유정미	1:29:19
하프 여자 3위	1564	송미숙	1:32:23
10km 남자 1위	3524	유효봉	0:34:35
10km 남자 2위	3323	나종대	0:34:49
10km 남자 3위	3460	김상성	0:35:26
10km 여자 1위	3608	송미경	0:39:55
10km 여자 2위	3114	오경민	0:42:12
10km 여자 3위	3598	백지운	0:42:48
5km 남자 1위	5727	이재식	15:05
5km 남자 2위	5737	전재완	15:26
5km 남자 3위	5739	정동현	15:30
5km 여자 1위	8372	김애경	18:34
5km 여자 2위	8389	이승희	18:51
5km 여자 3위	8377	남미옥	18:59

남자 풀코스 지난해 기록 55초 앞당겨

“2시간37분23초”에 3·1절 마라톤대회 47번째 우승자가 탄생했다.

대전에서 광주를 찾은 김수용(36)씨가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남자 풀코스 부문 우승자에 등극했다.

앞선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김씨는 2시간37분23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세 번째 도전 끝에 3·1절 마라톤대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지난 대회 1위 기록에서 55초를 끌어올린 김씨는 부활한 명품 도심코스에서 우승질주를 하는 기쁨을 누렸다.

여자부 풀코스에서는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이정숙(47·천안)씨가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씨는 2시간56분35초에 42.195km 완주를 이뤄내면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08년 첫 출전에서 하프코스 우승을 차지하며 3·1절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이씨는 2009년에도 하프코스 2연패를 이루는 등 총 4차례 3·1절 마라톤대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프코스에서는 2년 만에 3·1 마라톤에 재출전한 박승근(44·영암)씨가 1시간15분41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을 가져갔다. 경기도 안성에서 광주 나들이를 온 이경화(37)씨는 1시간21분09초에 질주를 끝내며 여자부 우승자가 됐다. 특히 마라톤 3년 차인 이씨는 3·1절 마라톤 첫 출전에서 우승 트로피까지 가져가는 기쁨을 토했다.

10km와 5km에서도 영광의 얼굴이 탄생했다. 10년의 마라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호봉(44·거제)씨와 김제마라톤클럽 소속의 송미경(43)씨가 각각 34분35초와 39분55초의 기록으로 10km 남녀우승자가 됐다.

5km 우승트로피는 전북과 전남이 나란히 가져갔다.

전주에서 온 이재식(31)씨가 15분05초 만에 결승선을 지나면서 5km 남자 우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 우승은 화순출신의 김애경(46)씨에게 돌아갔다. 2003년 3·1 마라톤에 처음 출전한 김씨는 대회 풀코스 준우승 경력도 가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자 풀코스 우승자 김수용씨가 결승 테이프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역주를 하고 있다.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남로 누비는 광일마라톤 부활 감회 새로워”

심판 총괄 심재용 광주육상연맹 전무 관전기

“호남 마라톤의 새 역사를 연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심판 총괄을 맡은 심재용(광주시청 육상감독) 광주육상연맹 전무이사가 날씨·운영·기록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심 전무는 “완연한 봄날씨에 참가자들이

가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한 것 같다. 풀코스 참가자들에게는 다소 답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 좋았다. 모든 코스에서 무리 없이 대회가 잘 치러졌다”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협조해준 참가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호남마라톤을 대표한 광일마라톤 코스의 부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심 전무는 “옛 전남도청에서 풀코스가 출발했다. 광일마라톤의 역사가 되살아났다. 옛날 육상 대신배들과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룡, LA 김원식 등이 모두 광일마라톤 출신이다”며 “도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라톤이 부활하면서 육상인으로서 기분이 날라르다”고 밝혔다.

도심을 달려 영산강변을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들어오는 풀코스는 ‘명품코스’로 전국 마라톤러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



이라는 전망이다. 심 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규모와 코스 등 모든 면에서 3·1 마라톤은 마라톤러들이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꼽힌다. 내년엔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아 마라톤의 묘미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